

INTER PACK '99 안의 한국포장산업

이번 INTER PACK '99에는 세계 각국의 2천3백40여개사가 참가했다.
이중 국내 포장업체에 참가는 다섯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주)새한은 독일
현대법인으로 참가에 이성을 쏟았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무엇보다 전시공간 동안 광활한 제도와 뛰어난
전시효과를 자랑하고 있는 국내 참가업체를 소개해보고
INTER PACK '99를 통해 유럽인 포장산업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 편집자 주 -

(주)새한(SAEHAN)

환경친화적 소재로 유럽시장 확보 탄탄한 기반 구축 계기

1985년 비디오테이프용 폴리에스터 베이스필름을 자체기술로 개발·생산한 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로 국내에서의 입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세계적인 폴리에스터 필름메이커로 성장한 (주)새한(대표이사 한형수)은 이번 INTER PACK '99에 A-PET SHEET와 연신필름, 가공필름을 비롯해 PET 레진 등을 출품했다.

환경친화적 소재의 개발과 이의 상용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럽에 (주)새한의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유럽시장 확보에 좀더 탄탄한 기반을 다짐과 동시에 기존 용기의 소재인 PVC나 PS 등의 소재에 비해 PET가 가진 환경친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창조하는 경영, 신뢰받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유럽시장에서 견고한 입지를 굳혀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는 (주)새한은 필름분야 200여업체, A-PET SHEET분야 110여업체, 레진 40여업체, 가공필름은 70여업체와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기타 상담건수의 경우 250여건에 달해 큰 성과를 이루었다.



◀ 독일 현지법인으로 참가한 (주)새한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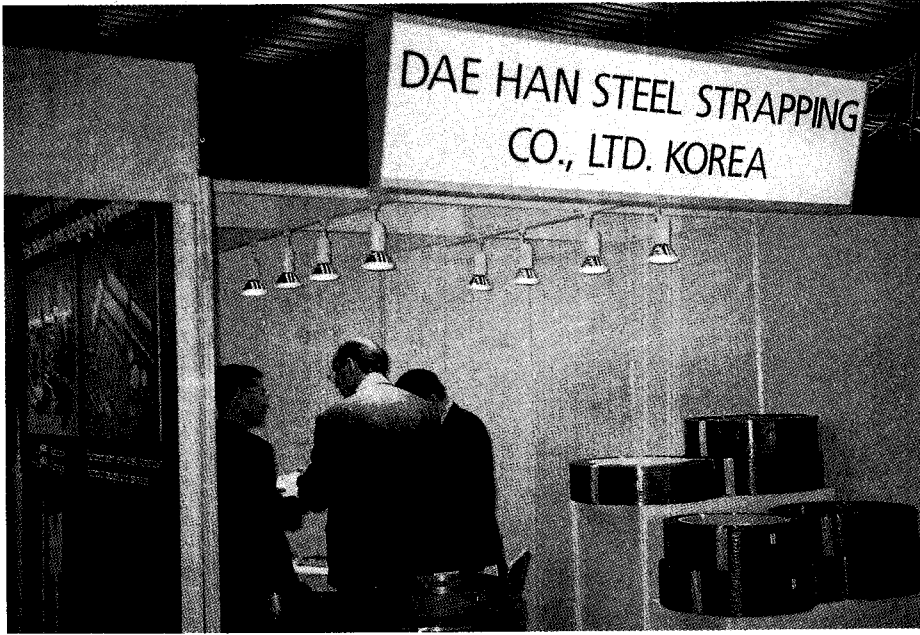
이번 INTER PACK '99에는 독일 현지법인으로 참가했는데 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있는만큼 여타의 국내 참가업체들보다는 현지에서의 인지도가 높아 유리한 점이 있었으며 이러한 유리한 상황을 최대한 살려 환경을 중시하는 유럽의 성향을 꿰뚫어 보고 환경친화적 소재라는 친근한 주제로 다가섰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성공적인 참가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강대공업(주)(DAEHAN STEEL STRAPPING CO., LTD)

스틸강대로 세계 시장 도약 희망

스틸강대를 주로 선보인 대한강대공업(주)(대표이사 한상혁)은 지난 3월 1일 설립된 업체로써 이번 INTER PACK '99에 작은 규모로 출품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처럼, 설립한 지는 이제 불과 2개월여이고 규모도 비교적 왜소한 업체이지만, 우수한 제품을 내세운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탄탄하게 성장하기 위해 세계 시장으로의 도약을 꾀하게 됐다. 대한강대공업(주)은 현재 포장업계의 전반적인 추세가 스틸강대보다는 PET밴드의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용도에 따라 적용이 구분되어야 하므로 스틸강대의 경쟁력은 있다고 설명했다.



◀ 평균 50건의 상담을 이룬 대한강대공업(주)부스

이번 INTER PACK '99에 대한강대공업(주)과 유사한 관련업체들이 많이 출품되어 오히려 좋은 정보를 얻게 됐다는 대한강대공업(주)은 이번 INTER PACK '99에 참가하면서 연륜은 짧은 회사지만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이 가장 큰 목표였다고 밝혔다.

INTER PACK '99에서 대한강대공업(주)를 찾은 관람객은 일 평균 40에서 50여명 정도였으며 대한강대공업(주)의 우수한 제품과 성실한 상담태도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실질적인 소득도 적지 않았다.

이름조차 생소한 업체였지만 세계의 포장업체와 어깨를 견줄만한 자신감을 얻게된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대한강대공업(주)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동신패킹(주)(TONGSHIN PACK CO.,LTD)

토탈마케팅 전환 계기 마련

1993년 설립된 동신패킹(주)(대표이사 현영구)은 이번 INTER PACK '99에 진공성형기계, 종이컵 성형기계, 아이스크림 콘포장성형기계와 이의 관련제품을 출품했다.



▶ 이번 전시회를 통해 토탈 마케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동신판(주) 부스

동신판(주)은 그동안 국내에서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수출실적을 쌓아왔으나 수출대상국이 개발도상국 위주로 편중되어 있었음을 직시하고 이에서 벗어나 유럽시장 진출의 거점을 확보한다는 대명제 아래 INTER PACK '99의 출품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 INTER PACK '99 참가를 계기로 지금까지 보여왔던 기계 위주의 하드웨어 마케팅에서 관련 제품과 원부자재 판매를 통한 소프트웨어 마케팅의 병행을 시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단순 기계 판매에서의 기계 보증과 제품판매 지원을 겸비한 토탈 마케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INTER PACK '99에서 일 평균 60여건의 상담을 진행한 동신판(주)은 실질적인 계약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동신판의 제품을 좀 더 폭넓게 알리고,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포장문화를 체험하는 등 INTER PACK '99에 출품하며 가졌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자체적인 내실을 기하는 기회가 됐다고 한다.

(주)이래화학(IRE CHEMICAL.,LTD)

세계적 분해성 전문기업 목표로

1997년 설립된 (주)이래화학(대표이사 정현수·김석태)은 국내에 분해성 제품을 정착시키고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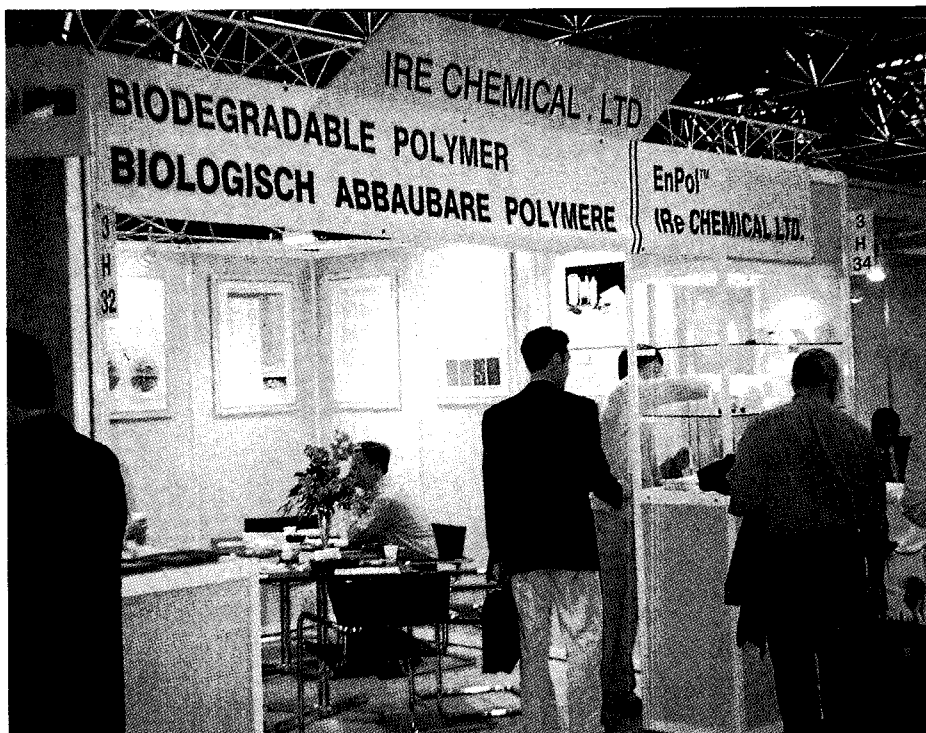
친화적인 소재를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업체로 이번 INTER PACK '99에는 환경친화성이 우수한 생분해수지 및 내시경 마우스피스, 빨대, 옷걸이 등을 선보였다.

국내에서의 분해성 시장을 장악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 분해성 전문기업을 경쟁상대로 삼고 분해성 수지의 용도별 물성, 가공성, 가격경쟁력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해 온 (주)이래화학은 이번 INTER PACK '99의 전반적 경향인 환경친화적 소재를 분해성 필름과 시트가 주도하고 있음에 더욱 밝은 전망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국내에 일부 분해성 수지가 유통되고 있기는 하나 분해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만큼 그 물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는 (주)이래화학은 기본적인 물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7~10배 이상의 가격 차이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설명하기도 했다.

(주)이래화학은 이러한 분해성 수지의 적용은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포장재에의 적용 뿐 아니라 보편적인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고부가가치성이 높은 의료용고분자 시장과 기능성 포장재 시장으로의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주)이래화학은 이번 INTER PACK '99에서 일 평균 7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 이루어 향후 세계시장 진출의 전망을 밝게 내다보고 있다.



◀ 분해성 수지를 선보이며 많은 관심을 모았던 (주)이래화학 부스



주화산업(주)(JOOHWA IND.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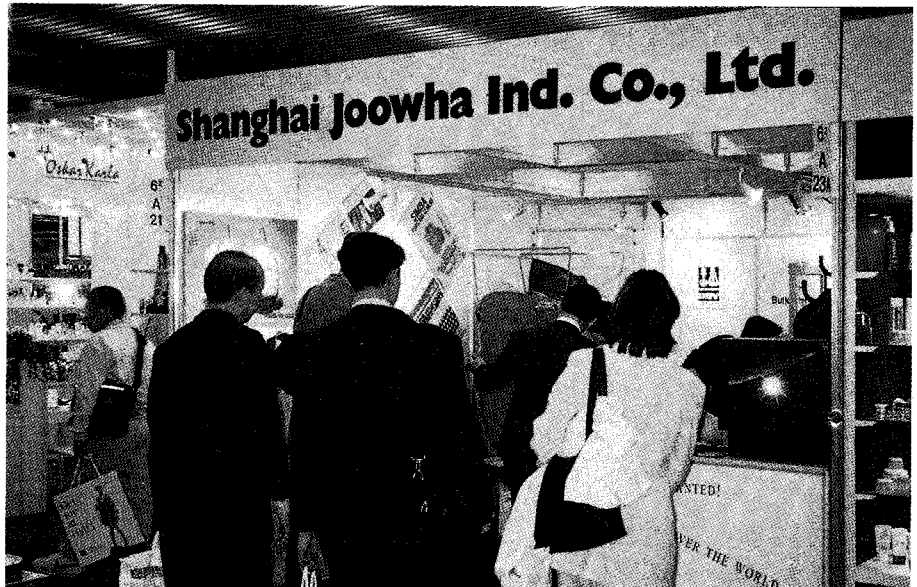
100% PP 원단 컨테이너백 출품

1984년 설립 이래 고객만족을 제일의 목표로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및 수출 업체로 성장한 주화산업(주)(대표이사 박찬경)은 '체사→제작→코팅→인쇄→가공'에 이르는 수직통합적 일괄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대화된 최신 설비에 대한 재투자와 신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경친화적 제품개발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물류분야에서는 컨테이너 박스 내 수직적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새로운 포장체계를 도입하여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고, 포장처리시간을 최소화해 물류비용 절감을 실현했다. 또한 주화산업(주) 자체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체계를 갖추었으므로 하역작업과 운송작업이 행하여지는 모든 장소에서 위험요소를 최소화했다.

최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물류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임과 동시에 선진국의 물류포장 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주화산업(주)은 이에 더욱 큰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5백kg에서 1톤까지 사용이 가능한 100% PP원단의 컨테이너백을 주로 선보였으며 일일 50개여업체가 상담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 100% PP 원단 컨테이너백을 선보인 주화산업(주) 부스